

與, 민생 프레임 앞세워 압박...野, 첫 장외집회 총력 여론전

국정화 확정고시 앞둔 여야 '교과서 전쟁' 최고조

다음달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 종료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번 주에 각각 국정화 강행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며 국회 안팎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내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하고, 11월 안으로 교과서 집필진·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를 구성해 집필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국정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화 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현안 처리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 격려사를 통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문 대표는 아직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고 단 한 자도 쓰이지 않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해 진실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좌편향 역사교과서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 자리에 있는 이산가족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내달 5일 국정화 고시 확정

朴대통령 내일 시정연설

정명들과 의지 밝힐 듯

文 "교과서 공개토론 하자"

한 번 더 쫓는 나쁜 행동"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 한 장 나오는데 우리의 원수 김일성 사진은 세상 나오는 역사교과서는 이제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체육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선의 방법이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친박근혜계가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오는 26일 국정화 지지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 주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필요한가"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확정고시가 되면 국정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국정화 저지 투쟁을 원내외로 전개하면서 대응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원내를 지키는 것은 '민생 외면 정당'으로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체험관' 개막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도 제발 색안경을 벗고 오셔서 우리 교과서들을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제안한다. 교과서들을 다 펼쳐놓고 공개토론해보자"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안중근 의사 가묘 등을 참배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인 27일 저녁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첫 장외집회를 연다. '국정화 말고, 국정을 부탁해'라는 제목의 문화제 행사인 이 집회에 대해 한 당직자는 "시정연설과 일부러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다"며 "장의투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28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만민토론회'를 열어 4차 연속회의로 의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광주시민대회"가 지난 23일 오후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중학생들이 '국정화 반대'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집회에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쟁' 휩싸인 국회, 예산안 심사 제대로 될까

내달 9일까지 예비심사 시한 전체회의의 날짜 못잡고 대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끝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 원안만 놓고 심사됐던 지난 2010년의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 내달 9일부터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중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

는 내달 9일까지는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관련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맞서 전체회의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KF-X 사업도 국방위 예산안 심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KF-X 사업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

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비심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생략된 채 본심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게 가장 중요한 지역구 사업 예산의 비목(費目) 신설이나 삭감 예산의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여야 모두 파국을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생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현재로서는 역사 교과서 같은 정치적 이슈를 전체적인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에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회동 뒤끝...여야 '3+3 회동' 사실상 무산

새정치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3+3 회동'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5차 회동의 내용을 문체부·협상 거부 등을 시사하고, 새누리당도 양보 없는 일전을 경고하며 정면충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원우철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 대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3+3 회동'이 화합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5차 회동처럼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없다"면서 "여당의 정기국회 및 국정운영 기조에 눈에 띄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최대 현안인 국정 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3+3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교과서 검증위' 구성과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국정교과서 운영예산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교육부 지원예산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통일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국수주의 예산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복지·경제회생 등 민생에 산을 불모도 삼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3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 및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FTA 비준안의 차질없는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틀어지게 됐다. 연말까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연내 완료해 집권 3년차 성과를 거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하나허니문 인기 상품

개주월 [세미팩] [직항이동] 프라하 6일/7일

총상품가 **1,9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EUR12~,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일/월요일

특 전 : 인천 → 프라하 직항 이동
프라하 스냅 촬영 포함/일일 데이투어 포함
공항 미팅, 샌딩 서비스 포함

개주월 [프리팩]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8일

총상품가 **2,144,6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요일

특 전 : 예식 후 당일 출발 가능
로마 → 피렌체 → 베네치아 초고속 열차티켓 포함
시내 중심의 준특급 호텔 숙박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스타가이드] 파리(1일관광)/이태리(더몰+피렌체) 8일

총상품가 **2,618,7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10월 ~ 12월 매주 일요일

특 전 : 파리-로마 항공 이동
유럽 아울렛 더몰+피렌체 가이드 관광
몽베르나스 타워 56층 코스 요리, 마장골레(해물 특식)with 와인

클래식 [반얀트리] 세이셸 6일/7일

총상품가 **3,453,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출발일 : 9월 ~ 16년 3월 매주 토/일/월요일

특 전 : 오션뷰풀빌라 4박 숙박 / 공항 → 리조트 간 미팅,샌딩 서비스
샴페인 1병, 디럭스 과일 바구니, 로맨틱 빌라 셋업, 기념 선물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기금기부,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호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포함여부 또한 불이득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호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이항 시장: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충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실 2중호실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판매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